

“전주서 다양한 공예체험 즐기세요”

전주공예품전시관, 한옥마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 위해 공예체험프로그램 32종 신설·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섬유체험 ▲놀이체험 ▲부채체험 ▲한지체험 ▲전통장신구만들기체험 ▲자기체험 ▲무형문화재협업체험 등 총 7개 분야에서 32종의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신설·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공예체험은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체험 시간은 최소 20분부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먼저, 아이들을 위한 공예 체험으로는 ▲오죽 마스크 줄 만들기, ▲부채(접선) 만들기 ▲자기 개 뒤꽂이 만들기 ▲소원 배 만들기 등이 마련됐다.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색을 칠하고, 한지를 잘라 붙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공예품을 완성할 수 있어 창의력과 지적향상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또 성인을 위한 공예 체험으로는 '전통 채상공예'의 ▲채상 잔 받침 만들기과 '전통 짜맞춤'이 접목된 ▲호주반 만들기, '색지공예'를 활용한 ▲한지 상자 만들기, '섬유 공예' 체험인 ▲매듭 가방 만들기 등이 있다. 체험을 통해 만든 공예품은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 가운데 양말목 티코스터 만들기는 업사이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총 7개 분야에서 32종의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신설·개편했다.(사진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전경)

클링 공예 체험으로, 양말공장에서 버려진 폐섬유를 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과정을 통해 '공예의 가치'와 '환경 감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체험이다.

특히 채상(원형 컵받침), 국궁(화살통, 활, 화살), 소반 만들기의 경우 무형문화재 협업 프로그램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장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원장은 “최근 전주가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돼 전주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공예문화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 체험(10명 이상)은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onjucraft.or.kr) 또는 체험관(063-281-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목관과 함께하는 산뜻한 콘서트’

전주문화재단, 28일 전주한벽공연장서 목관 앙상블 ‘포레’ 공연

전주문화재단은 2022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The Classic: 세계 그리고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연인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전주한벽문화관이 주관하는 'The Classic: 세계 그리고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화 5가지의 주제로 총 5회 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는 봄 이야기를 이끌 공연단체는 목관 앙상블 '포레'이며 '목관과 함께하는 산뜻한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목관 앙상블 '포레'는 '숲(forest)'이라는 뜻의 불어로, 숲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겠다는 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창단한 단체다. 전북에서 유일한 목관 5중주 팀으로써 대중들에게 목관악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친숙한 레퍼토리로 꾸며진 다양한 무대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앙상블 포레가 준비한 '목관과 함께하는

산뜻한 콘서트'는 새가 지저귀는 듯한 목관 앙상블의 연주로 봄을 알리고자 한다. 드보르작 슬라브무곡을 시작으로 그리고 페르 캄트 모음집 1번의 제1곡, 4곡을 연주한다. 뒤이어 비제의 목관 앙상블을 위한 카르멘 모음곡 제1, 2, 5, 6곡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샤를 구노의 목관 앙상블을 위한 작은 협주곡 전 악장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목관악기만의 산뜻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취지에 부합하는, 테마가 있는 공연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정체돼 있던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무료 공연인 만큼 따스한 봄날 부담없이 한벽공연장으로 나들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은 무료 사전 예약으로, 전주문화재단 브랜드공연팀으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704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원, '웰니스 관광지' 첫 선정

태권도진흥재단, 다양한 웰니스 여행 상품 선보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웰니스 관광지'에 태권도원이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 2017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지에 태권도원은 올해 '처음' 선정되었고,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신규 관광지이다.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과 시설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의 전문 자격 취득 여부, 외국인 관광객 수용에 대한 준비, 20년·21년의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올해 신규 9개소를 포함해 전국 59곳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마음의 면역을 튼튼히 하는 힐링 명상 우수시설로 태권전과 명인관이 있는 태권도원 상징지구를 중심으로 휴양, 명상, 치유 등과 연계한 태권도 관광 상품을 출시·운영하며 이미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전북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은 70만명의 부지가 산으로 둘러싸

여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공연과 태권힐링체조, 체인지로(순수) 트레킹, 태권힐링테라피, 태권도수련명상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휴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등 태권도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여행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시장에도 힐링, 치유, 안전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힐링과 치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며 “2022년에는 태권도를 통한 완벽한 휴을 경험해보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힘을 길러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 웰니스' 상품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3-320-0126)를 통해 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태권도원' 검색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부안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공모 3건 선정

부안예술회관은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에 3건이 선정돼 국비 8976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전국 17개 문예회관 중 두 번째, 군단위 문예회관 중 첫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지난해 확보한 6852만원 대비 무려 31%나 늘었다.

선정된 세부 프로그램은 대중음악 가수 정동하와 소향의 목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불후의 클래식 정동하소향 콘서트',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무용 언어로 풀어낸 '시월 <애기섬>',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할배들의 새로운 인생도전기 연극 '할배열전' 등으로 올해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 방방곡곡 문화공감 외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꿈의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아트브릿지 B.O.M(봄)'

부안군, 24일 대한노인회 공터서 진행

부안군은 2022 꿈의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아트브릿지 B.O.M(봄)' 공연을 오는 24일 오후 4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옆 공터(실버복지관 뒤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꿈의오케스트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난 2010년 8개 거점기관으로 출발해 현재 총 52개 기관에서 음악을 통해 약 2900여명의 아이들의 다면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안아라울오케스트라는 지난 2012년 2기로 출발해 부안지역 아동·청소년 200여명이 음악으로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꿈의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코로나19로 관계가 단절된 주민들에게 관계회복의 가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든 공연으로써 부안아라울오케스트라 단원 40여명과 졸업생, 성악가 이승희 테너, 피아니스트 진수경씨 등이 사계(The Four Seasons) 중 봄 관련 곡을 포함해 8곡을 연주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절된 지역사회를 음악으로 연결해 추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일상회복을 응원하고자 준비한 공연이니 많은 주민들이 클래식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